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2026년 3월 1일

3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얼음 깨기

봄

3월의 따스한 봄을 2026년도 함께하게 된 목장 식구들과 만끽해 보세요. 얼어있던 땅이 풀리면서 솟아나게 되는 식물처럼 목장 가운데에도 자라나는 열매가 있길 소망합니다.

1. 봄 소풍을 계획해 보세요

2. 사순절 기간입니다. 함께 경건의 시간을 계획해 보세요.

3. 새로운 식구를 환영해 주세요

경배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아오리라

소식

1. 목장 모임

상반기 목장모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나라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즐겁게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2. 태국 해비타트팀 출국

옴꼬이 예수원 여자기숙사 리모델링 해비타트 팀이 오는 4일(수) 1차팀 출국을 시작으로 11일(수) 2차팀, 14일(토) 3차팀이 차례로 출국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세례식

3월 22일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세요

교회행사

3월

1일	진공첫 6기 모집 마감
5-21일	해비타트 사역
7일	부부사랑 학교 개강
8일	진공첫 6기 시작
12/14일	1차 세례 교육
19/21일	2차 세례 교육
21일	세례 문답식
22일	세례식
29일	종려주일 /성찬식
30일-4일	고난주간/고난주간말씀과 기도

4월

5일	부활주일
11일	신중년 야유회
24-25일	목자 수련회

선 교 [이윤주 선교사]

일본

1. 3명의 몽골 형재 자매의 구원을 위해 (후르츠 형제, 엔토, 멘토 형제, 함바로 형제)

2. 일본에 살고 있는 중국 옹형제, 그리고 일본인 오노 형제, 하라바 형제를 위해

3. 자녀 보라, 실라를 위하여

한 문장 큰 울림

"그리스도는 우리를 단순히 '수리(Repair)'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Remake)' 하러 오셨습니다."

-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중 -

[요한복음 9장 4~5절]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9장은 의미 있는 장입니다. 7장 초막절부터 시작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9장의 사건에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1. 그 당시의 선입견 (2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2절) 당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의 장애는 그 사람의 죄의 열매 혹은 그의 부모의 죄의 열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나 저주받은 백성으로 유대인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부모로부터 3~4세대가 저주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ex: 욥의 세 친구 이야기) 이렇게 인간의 지식은 풍성하고 깊은 것 같지만 편리하려고만 할 때에 누군가에겐 비수로 꽂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의 결과물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를 바라보셨습니다.

[나눔] 사람들은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 하며 죄의 결과물로 여기는 몸에 있는 장애를,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시는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편협적이었던 시각으로 오해를 했던 부분을 한번 나눠보세요.

2. 길을 가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보신 예수님 (1절)

예수님은 겔34:1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상한 자,아픈 자,고통받는 자)를 직접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이러한 자들을 찾으러 다니셨고 오늘날에 이르러 우리를 바라보시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나눔]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직접 찾아다니셨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들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찾아다니는 모습이 있는데 이에 따른 받은 상처나 회개해야 할 모습이 있다면 한번 나눠 보세요

3. 하나님이 하시는 일 (4~5절)

4~5절에는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흙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맹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이 당시에 침의 의미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이 진흙을 눈에 바르셔서 새 창조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나음을 입는 정도가 아닌 새 창조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표현 합니다.

[나눔] 맹인은 자신의 눈에 진흙이 발라지는 낯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새 창조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최근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나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믿고 맡겨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을 나눠보세요.

4.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7절)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발라주시고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실로암 못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보냄을 받았다' 는 뜻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음을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맹인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 받은 자' 임을 말뿐만 아니라 실제 삶과 행동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각자의 가정, 직장, 학교로 '보냄 받은 자' 들입니다. 현재 내가 보냄 받은 삶의 자리에서 말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언해야 할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나눠봅시다.

나눔	[요한복음을 통해 배우는 교훈 / 요한복음 9장 1~12절]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 점을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나라를 세워가며 말씀을 비축하고 기도를 쌓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 편협한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찾아와 주소서 —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새롭게 창조해주시고 그것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빛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소서.